

IMF시대 어수선한 사회 초등학생까지 '주술 유행'

불안한 시대일수록 어떤 힘에 의지하고픈 심정은 자연스럽다. 더욱이 요즘처럼 IMF한과가 몰아쳐 실직의 불안이 엄습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칫 불안해소를 자신의 의지에 의지 않고 주술에 기대려는 심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타적인 성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병리적인 현상이다.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는 어린이들에게 주술을 부추기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어른들의 알뜰한 상흔과 무관심이 어린이들의 주술유행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알뜰한 상흔·어른모방 심리 '문제' 작년 3백만명 점박 "어른이 모범을"

서울 신촌지역에서는 문제풀이 뿐만 아니라 취업 카운슬링과 대학진학 안내까지 해주고 있다.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을 강조하는 불교의 일각에서도 정초가 되면 부적과 '삼재풀이' 등의 책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이제는 어린이들에게까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알뜰한 상흔이 깨어 들어 어린이들을 부추기고 있는 면도 있지만, 어른들의 모습을 모방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반성이 촉구된다.

"살라살라..."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 귀신을 쫓는다는 유행하는 유행 모를 주문이다. 소원을 적은 쪽지를 입에 물고 10분 정도 있으면 희망을 이룰 수 있다거나, 여럿이 함께 연필을 잡고 주문을 외

이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10여종의 '어린이용 주술서', 대부분 일본인 저자이거나 아예 저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책표지에는 '미래를 알아 본다' '소원을 들어주는'이라는 문구를 넣어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인상을 준다. 이런 책들은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의 어린이서적 코너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결여돼 미숙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며 부모들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어른들의 불안감도 아이들을 미신에 의존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어른들이 미신을 멀리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자신을 등불삼고 의지하라"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모든 변화하는 환경의 개척자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등불 삼고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진리)을 등불 삼고 법에 의지할 것이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대열반경) 또 (대아미타경)에서는 정진을 당부하고 있다. "큰 바다도 한 사람이 밭(작)로 헤아려 무한한 시일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는다면 그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 지심으로 구도하여 정진해 마지않을 경우, 무슨 구한일을 얻지 못하며, 무슨 소원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감원바람 여성에 거세다

차별하고 부당... 합리적 기준 필요

직장마다 감원바람이 불면서 퇴직 1순위로 맞닥뜨린 여성과 장기근속미혼 여성이 거론되고 있다. 4일 여성실무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취형, 성회형, 승진차별 등이 주종을 이루었던 여성직장인들의 상담내용이 지난 12월 이후 해고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한 대형광고회사의 여직원은 "소속부서 직원 10명에게 이월내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는데, 8명이 여성이고 이중 7명이 기

이웃은 더 뜨거워졌다

IMF한과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웃돕기 운동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불우이웃돕기 모금실적을 중간점검한 결과, 5일 현재 1백17억8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백9억9천만보다 8.1% 늘었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낸 모금액은 35%에 그쳤으나 일반국민들의 모금액은 1백9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3% 늘었다.

이웃사랑에 재기한 장애인

전재산을 도둑맞아 실의에 빠진 금은방 주인이 이웃사랑으로 일어서고 있다. 서울 정릉1동에서 '고명사'란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함승수씨는 10여년 동안 모은 돈으로 금은방을 차렸으나 지난해 말 도둑에게 전 재산을 털렸다. 이웃주민 20여명은 6일 1백만원씩을 모아 함씨에게 건네며 격려했다. 함씨는 "저도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며 재기를 다짐했다.

세계여성과학자상 수상

우리나라의 유명화학사(생명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가 7일 세계 여성과학자들의 역할과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 격년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제1회 헬레나 루빈스테인상을 수상했다.

유박사는 호흡기종을 일으키는 열장저해제 '엔티트립신'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해 단백질연구분야와 의학계에 크게 기여했다.

IMF 총동적 범죄 급증

감원바람과 장기불황에 떠밀린 광범한 시민들의 총동적 범죄가 늘고 있다. 경찰은 7일 불합리한 인사고과 때문에 해고됐다며 상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회사원을 비롯 생활고를 못이겨 생필품을 훔친 주부, 일지리를 잃고 음란비디오에이프를 판매한 김모씨 형제 등을 붙잡았다. 또 경제위기에 따른 혼란을 틈탄 신종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우리 사회를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중금사 과장 고객돈 빼돌려

중합금융사 직원이 39억원에 이르는 고객 및 회사돈을 횡령, 해외로 달아나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D중금사 과장 고모씨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고객인간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객돈을 빼내 뒤 홍콩으로 달아났다.

日 순시선 독도영해 침범

동해에서 표류중인 국적불명의 선박을 예인한다며 한 국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도 영해를 침범했다. 외무부는 영해 침범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환경관리공단 무더기 특채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환경부간부 등이 환경관리공단에 자신들의 친인척 등 20여명을 특별채용토록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7일 드러났다. 이 공단의 복직종사자장도 13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황정보

가족열람실에 가보세요

어린이용 도서는 물론 부모가 볼 수 있는 잡지와 신문, 교육용 CD롬, 비디오, 장난감블록 등을 갖춘 시립도서관내의 '가족열람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있는 가족열람실은 중계도서관 유아실, 목동도서관, 국립중앙도

서관 가족열람실, 마포도서관 모자열람실, 개포도서관 어린이열람실.

생선으로 심장마비 예방

미국 보스턴의 크리스틴 엘버트박사는 7일 미국화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1주일에 한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심장마비 발생가능성이 5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日 위안부 보상 광고 '파문'

국내 일간지계재...외무부 강력 항의

일본의 '아시아 여성을 위한 평화기금'(아시아 평화기금)이 6일자 우리나라 일부 일간지에 '이것이 아시아 여성기금의 사업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 게재와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이 광고에서 위안부 피해자 1만명 5백만엔의 사과금과 의료복지 지원비를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국가배상, 일본국회

의 사회결의, 관련자 색출 및 처벌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즉각 규탄성명을 발표, "이같은 광고행위는 비공식적인 민간차원에서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려는 또다른 역사왜곡"이라며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국가배상을 촉구했다. 외무부도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아시아 여성기금의 보상금지급에 반대한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강력 항의했다.

불교학인모집

불교 최고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1. 원서교부 및 접수: 1월 5일 ~ 2월 15일까지
2. 모집과정 및 정원: ①전문학부 (통신반) 200명
②연구과정 (통신반) 30명
3. 입학자격 전문학부: ①대졸이상의 학력자
②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불교 정법을 알고자 하는자

연구과정: ①승가대학원 졸업자
②불교관계 박사과정 수료자

4. 교육기간: 전문학부·연구과정·각3년(6학기)
5. 졸업학력: 각종 자격증이 수여됨

* 자세한 입학안내서는 편지로 청구하면 보내드립니다.

UN · NGO · IAEWP · 협동학교

한국승가대학원

(우)701-600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 (053)952-8711 · 017-501-8711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神筆 (眞品)
佛子體의 神祕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리니, 각종 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榮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財家庭의 幸福을 위하여 승진 사업번영의 幸福을 위하여 연성지법 무법행자의 영험적 계몽을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을 시경삼근대사로 神祕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寶物이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 모집(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글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硏究會

☎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상),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매주 목요일, 일요일
-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